배추값 올라… 김장 담그는 가정 줄어든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64.9% 직접 담가 지난해보다 0.4%P 하락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 사먹겠다는 가구 13%에서 16%로 늘어

김장철 무 가격은 전년보다 떨어지는 반면, 배추를 비롯한 당근, 마늘 대파 등 양념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거침없이 오르던 채소 값이 그나마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비싼 탓에 올해 김장을 담그겠다는 가정도 줄었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내놓은 관측정보에 따르면 이달 가을무는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출하량 역시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가격은 20㎏ 기준 지난해(7510원)와 평년(8300원)보다 낮은 7300원 내외로 예측됐다.

이와 달리 배추는 본격적인 김장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김장에 사용되는 가을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4% 감소가 예상된다. 11월 상순까지 출하가 원활하지만 해남 등 전남지역 가을배추 정식이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탓에 중·하순부터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관측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달 상품 10㎏(약 3포기)당 도매가는 지난해(4930원)와 평년(4920원)보다 높은 5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다만, 이달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변동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장에 쓰이는 양념채소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근은 파종과 생육기 폭염과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해 전국 생산량이 평년보다 18%나 줄어든 상태다. 20㎏당 가격이 지난해(2만2820원)와 평년(2만3650원)에 비해 무려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5만5000원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대파 역시 경기·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가격 강세로 출하가 앞당겨지면서 출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가격도 대폭 올랐다. 김장철 예상가격은 1㎏(상품)당 2200원 수준으로, 전년(1298원)의 두배 수준을 육박하겠다. 마늘도 전년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 이달 깐마늘 도매가는 김장철 수요로 1㎏당 58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추를 비롯해 양념채소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김장을 담그는 가정은 줄어들고 김치를 사먹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패널(622명)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 김장 시 소비되는 배추의 양은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24.4포기보다 1포기 감소한 23.4포기로 조사됐다. 무도 9.1개에서 9개로 줄었다.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 또한 지난해 65.3%보다 0.4%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친지로부터 구매하는 비중도 8% 감소했고, 친지에게 무료로 조달받는 비중은 11% 감소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사먹겠다는 비중이 13%에서 16%로 3%포인트나 늘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스포
전남 수산기업들
106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전남도 수산기업들이 지난 10월 31일부터 2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스포'에서 10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4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이에스코리아가 지난 10월 31일 베트남 기업과 전복통조림, 냉동전복 등 전복가공제품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중국 기업과 6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이에스코리아, ㈜가리미, 바다향기, 바다랑해조랑, (유)청연푸드, ㈜흥일식품, (유)청해에스앤에프, ㈜신안우럭 등 지역수산기업들이 참가해 알긴산 음료, 조미김, 전복통조림, 꼬막장, 괭생이모자반, 반건조 우럭 등 다양한 수산제품을 전시·홍보하고 국내외 바이어들과 상담했다.

이들 기업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1차년도 수혜기업들이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하고 전남도와 목포시가 보조·수행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참여기관은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및 ㈜더오션 등이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지난 10월 31일 지역 수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NS홈쇼핑과 유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임영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바이어 미팅 등 마케팅 지원을 늘려 전남에도 수산스타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안포자율관리공동체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희한 안포마을 어촌계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시상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여수 안포자율관리공동체,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해남 송호·보성 객산 장관상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상 휩쓸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관리·지원하고 있는 여수 안포자율관리공동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해남 송호자율관리공동체 용양배 위원장, 보성 객산자율관리공동체 이종덕 위원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관리 대상 어촌들이다.

4일 센터에 따르면 여수 안포자율관리공동체는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4년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어장 청소, 수산종자 방류, 금어기 설정 등 체계적 자원관리를 통해 지난해 연간 공동체 소득이 7억2000만원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 송호와 보성 객산은 양식장에 발생한 괭생이모자반 자체 수거·처리, 새꼬막 자원 증강을 통한 공동체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정부가 2003년부터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치 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어업 예방 등을 실천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어업인 참여 확산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전국 1170개소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는 7만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희한 안포마을 어촌계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모든 영광과 기쁨을 주민들과 나누고싶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미국 중간선거 따른 추이 변화 주목
상장지수펀드에 관심을

코스피지수가 수급약화 및 미국과 국내 기업 실적부진 우려 등으로 지난주 2000포인트 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달러당 7위안을 위협하던 위안화 안정 등으로 금요일 하루만에 71포인트(3.53%) 상승하며 급반등 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와 중국상해종합지수도 2% 넘게 상승했는데, 아시아증시의 반전은 트럼프대통령 말과 위안화 환율에 주목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주석과 길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여러 주제를 놓고 이야기 했지만 무역문제에 중점을 뒀다" 고 밝혔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일, 트럼프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초안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오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 이후인 다음달 1일 시진핑주석과 저녁만찬을 제의했으며 중국도 잠정 수락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 10월 말 달러당 6.976위안까지 상승하며 급등추세를 보였던 위안화는 중국정부가 홍콩에서 2조원대 규모의 중앙은행증권 발행 계획을 밝히고 본격적인 환율시장 개입의사를 밝히자 6.890 위안으로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위안화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원화도 금요일만 16.5원(-1.45%) 하락하며 1121.60원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외국인투자자는 금요일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4406억원과 코스닥시장에서 1275억원을 순매수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기전자, 화학, 금융업을 중심으로 순매수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IT, 오락·문화, 원자재, 제약·바이오 등 특정업종보다 시장 전반에 걸쳐 순매수를 보였다.

시장에서 무역분쟁 합의 기대감은 매우 크지만 최종합의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증시의 급등에도 지난 금요일 미국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 진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합의 시점에 있지 않다' 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상안 진전을 부인했는데, 발언 이후 미국 3대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실적악화 우려와 공포심리를 자극했던 미·중 무역정책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완화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이 시장 친화적 발언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어 오는 6일 이후 트럼프대통령의 태도변화 여부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중국측 대응이 중요하므로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필자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언급했고 시장흐름을 바꿀만한 상승동력이 부족해 반등폭도 제한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주 미국중간선거에서 시장의 예상처럼 선거결과가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으로 나오고 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긍정적인 협상의지를 보인다면 시장 반전과 함께 반등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므로 추이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수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목과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펀드)에 관심이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